



세계 역사도시 사례와 수원

에든버러와 아비뇽을 통해 본 역사자원과 도시정체성 전략

요약

□ 도시의 역사자원과 관광은 필연적인共生관계

- 유산관광은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촉매제
⇒ 유산관광은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 및 역동성을 강화하는 수단
⇒ 역사에만 집중된 유산관광전략은 다소 정체된 도시이미지 형성 가능성 상존

□ 도시의 고유성 강화를 위한 전략

- 역사도시의 매력은 객관적 고유성과 낭만적 고유성 두 방향으로 강화
⇒ UNESCO 세계유산지정은 도시의 역사자원에 대한 고유성을 강화
⇒ 유산관광에 문화예술 요소가 결합했을 때 도시의 낭만적 고유성 향상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와 프랑스 아비뇽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두 도시 모두 도시의 핵심적인 역사구역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표적 역사도시이자 관광도시
⇒ 에든버러는 프린지,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밀리터리 타투 등 공연예술축제의 도입으로 도시의 낭만적 고유성 강화 및 이미지 다변화 성공
⇒ 아비뇽의 대표적 연극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은 도시의 예술적 이미지 구축

□ 역사도시로서 수원시의 이미지 다변화 전략 필요

- 건축유산인 수원화성과 수원화성문화재는 도시의 아이콘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은 수원시 관광의 동력이지만 자칫 정적이고 낡은 이미지 고착화 우려
⇒ 공연예술축제와 같은 이벤트의 적극적 육성을 통하여 낭만적인 도시 이미지로의 다변화 전략 필요

[1] 역사도시와 관광의 공생적 관계

□ 도시의 역사자원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정체성

현대 사회에서 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변화된 발전은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대표적 역사철학서인 E.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제시된 것을 따르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사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요구와 가치에 따라 해석이 작동하는 역동적인 이야기라는 것이다. 역사도시 또한 도시의 정체성이 과거의 정적인 이야기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과 표현을 통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러한 역동성은 도시의 매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도시가 지닌 역사와 관광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역동성을 상호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공생관계에 있다. 도시가 지니고 있는 역사자원은 관광의 핵심 대상으로서 일명 도시의 유산관광(heritage tourism)을 형성하는 동력이자 목적이 되어 관광을 통해 도시의 기존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관광이 단순히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에만 한정된 것은 결코 아니다. 역사를 경험소비대상으로 하는 유산관광은 위락과 교육이 동시에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도시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어 도시의 역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특히, 역사와 관광에 문화예술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결합이 되었을 때 역사도시와 관광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 역사자원과 문화예술의 결합을 통한 관광의 역동성

이 글에서는 역사도시로서의 핵심 정체성을 지닌 장소가 관광을 통해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문화예술의 결합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Edinburgh)와 프랑스 아비뇽(Avignon)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로 제시한 두 도시가 공유하는 두 가지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든버러와 아비뇽 모두 유럽에서 오랫동안 번성한 도시로서 다양한 역사, 문화, 예술, 종교적 유산을 지니고 있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국제적인 공인 기구인 UNESCO에서 인정하여 도시의 핵심역사지구를 같은 해인 1995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았다는 점이다. 둘째, 두 도시 모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연예술축제를 개최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고, 축제기간동안 전 세계에서 유명한 공연예술가와 공연산업관계자들의 공연시장이 열린다. 당연하게도 이 축제기간에는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수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덧붙여, 이 두 사례가 지닌 역사, 관광, 문화예술의 상호작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술적 개념인 고유성화(authentication)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2] 고유성화(authentication)

□ 관광지의 고유성(진정성) 전략

고유성화(authentication)라는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는 용어는 이스라엘 학자인 Cohen&Cohen (2012)이 제시한 학술적 개념으로서 “제품, 장소, 대상 혹은 이벤트의 원본, 진품, 사실 혹은 신뢰도가 확인되고 형성되는 과정”을 지칭한다¹⁾. 관광지에서의 고유성은 진짜 또는 원본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연구자들뿐 아니라 관광지 마케터들에게도 관심을 받는 개념이다. 특히, 관광지의 고유성(혹은 진정성)이 역사도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광지의 고유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인 고유성화(authentication)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다. Cohen&Cohen(2012)의 주장에 따르면, 관광지의 고유성은 두 가지 상이한 특성을 지닌 방향에서 형성될 수 있고, 이를 ‘cool authentication’과 ‘hot authentication’으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다. 관광지로서 역사도시의 고유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력, 행위, 전통, 지식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cool authentication은 객관적 고유성화라고 지칭할 수도 있을 것 같다. UNESCO와 같이 권위를 지닌 기관 혹은 전문가가 대상의 가치와 원본여부를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장소나 대상이 고유성의 지위를 얻게 되는 과정을 지칭한다. 뒤에서 소개할 에든버러와 아비뇽 두 도시 모두 UNESCO에서 지정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있다는 사실은 세계적 공신력을 지닌 UNESCO라는 국제기구에서 도시의 역사적 가치와 고유성을 인증해주는 과정을 통해 객관적 고유성을 확보했다는 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hot authentication은 권위를 지닌 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 고유성이 인증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의 다양한 자발적 의식행위나 집단적 의미부여 활동으로 서서히 해당 장소만의 고유한 의미가 형성되는 일종의 주관적 고유성화 과정을 지칭한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두 도시의 사례에서는 공연예술축제에 참여하는 예술가들과 축제방문객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해당 도시와 연관해서 축적된 활동과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고유한 의미가 hot authentication을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Cohen&Cohen(2012)의 주장처럼 역사도시로서 관광지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인증을 의미하는 cool authentication뿐 아니라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서서히 구축되는 고유성 형성 과정인 hot authentication 또한 필요하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에든버러와 아비뇽 두 도시 모두 유럽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인 동시에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열정적인 공연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도시라는 점에서 cool과 hot의 두 가지 상반된 고유성화 전략이 이루어지는 흥미로운 사례로 보인다.

1) Cohen&Cohen, 2012, p.1296

[3] 에든버러(Edinburgh)와 다양한 공연예술축제

스코틀랜드(Scotland)를 대표하는 도시인 에든버러는 인구 약 50만 명의 역사적 도시이다. 이 도시의 역사는 로마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에든버러의 어원은 “이든의 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도 도시의 대표적 랜드마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에든버러 성에서 그 명칭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글래스고(Glasgow)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에든버러는 1437년부터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되었으며 이후 스코틀랜드의 정치, 문화, 교육,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에든버러는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흄과 같이 한 시대를 풍미한 독보적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활약했던 도시이기도 하며 핵심적 역사지구에는 이들의 동상이 세워져 도시를 상징하는 역사적 존재로서 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에든버러는 중세 요새인 에든버러 성을 포함한 중세양식의 건축물이 집중된 올드타운과 18세기부터 형성된 신고전 양식의 뉴타운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에든버러는 현재 4,500개 이상의 중세 건축물과 신고전 양식의 건축물이 어우러진 독특하고 매력적인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에든버러의 올드타운과 뉴타운은 1995년에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에든버러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 및 문화자원으로 인해 현재는 UK에서 런던에 이어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유명 관광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에든버러는 역사적 건축물이 어우러진 역사도시의 경관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큰 공연예술축제인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과 프린지(the Fringe)가 개최되는 축제도시로도 유명하다.

□ 에든버러의 다양한 축제를 통한 도시정체성

에든버러는 1년 연중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페스티벌이 도시의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7월과 8월에 걸쳐 개최되는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프린지(the Fringe), 로열 에든버러 밀리터리 타투(Royal Edinburgh Military Tattoo) 등이 도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중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프린지는 글자 그대로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의 주변 행사로서 시작되었다. 1947년에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지 못한 일부 공연단체들이 도시의 인근 공연장에서 자체적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이후 심사를 받지 않는 공연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역동적 축제로서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는 2022년 기준 약 60,000회의 공연이 축제기간인 25일 동안 도시 전역의 322개의 공연장을 활용하여 개최될 정도로 큰 규모의 종합예술공연축제가 되었다. 밀리터리 타투는 약 한 달간의 군악공연축제로서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의 대표적인 군악대들을 초청하여 에든버러 성을 배경으로 군악공연을 펼치는 행사이다. 행사가 개최되는 약 한 달간 500만 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기록할 정도로 거대한 군악공연축제이다. 이러한 축제들은 에든버러라는 역사적 건축물이 가득한 도시의 정체성을 다면적으로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도시의 고유성화를 구축하는 방식에 있어 UNESCO 세계유산을 통해 역사도시로서의 고유성(cool authentication)이 구축되는 동시에 매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여러

공연예술축제를 통해서도 도시의 예술적 고유성(hot authentication)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가적인 방식의 고유성 형성 전략은 에든버러라는 역사도시의 매력을 강화시키는 본질적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프린지(The Fringe)>



<밀리터리 타투
(Military Tattoo)>



[4] 아비뇽(Avignon) 연극축제

아비뇽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에 있는 대표적 역사도시 중 하나로서 프랑스의 대표적 관광 명소이다. 아비뇽은 로마 제국 시대부터 군사적 중요성을 지닌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까지 다양한 로마 시대 유적물이 남아 있다. 아비뇽은 역사적 사건인 일명 “아비뇽 유수”가 일어난 도시로서 14세기 중반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교황청이 위치한 장소로 유명하다. 이 기간에, 로마 교황들이 아비뇽에 교황 본부를 이전하여 “아비뇽 교황청”을 세웠고 이 기간을 “아비뇽 포피”라고도 부른다. 그때 건축된 아비뇽 교황궁(Palais des Papes)은 아비뇽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로, 교황의 궁전으로 사용되었다. 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이 건물은 아비뇽의 역사와 교황청 기간을 기억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매해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지는 곳이다. 아비뇽은 현재까지도 중세 도시의 성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성곽도시로서 도시의 역사적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성벽 안에 있는 도시의 역사중심지는 1995년에 UNESCO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 역사중심지에 위치한 다양한 건축유산에는 매력적인 레스토랑, 상점, 예술 갤러리 등이 다양하게 들어서 있어 프로방스 지역의 문화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아비뇽이 프로방스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배경에는 지역의 풍부한 건축유산 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하나로서 아비뇽 페스티벌(Festival d’Avignon)을 들 수 있다.

□ 아비뇽 페스티벌과 도시의 역동성

아비뇽 페스티벌(Festival d’Avignon)은 프랑스의 미셸 스테네(Michel Stnet)와 지누 베라(Festival d’Avignon의 창립자)에 의해 1947년에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국제적인 연극 공연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로는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장되어 전 세계적인 예술공연축제로서의 명성을 지니고 있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비주얼 아트, 문학 등 다양한 예술 형태를 포함한 예술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곳으로, 다양한 국제적 예술가와 그룹이 참여한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일반적으로 3주(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간 진행되며, 성벽 내 도시의 다양한 건축유산을 활용하여 공연이 진행된다. 개막 작품의 경우 상징적으로 아비뇽의 역사적인 대표 건축물인 아비뇽 교황궁(Palais des Papes)을 활용하여 공연이 펼쳐진다. 이러한 도시의 건축유산과 공연예술작품의 결합은 관객에게 역사와 예술이 융합된 독특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마찬가지로 아비뇽 페스티벌 또한 공연마켓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어 전 세계의 여러 공연산업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유수의 제작자들이 연출한 연극 및 공연작품들의 홍보 및 판매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축제 기간엔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하여 이러한 도시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된다. 앞서 소개한 에든버러와 마찬가지로 아비뇽 역시 역사도시의 이미지가 공연예술과 결합하여 객관적 고유성뿐 아니라 주관적 고유성까지 같이 형성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매력에 다변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다.

[5] 역사자원을 가진 도시에게 주는 시사점

□ 현대사회와 역사도시

현대 사회에서 역사도시를 포함한 다수의 도시는 좀 더 매력적인 문화를 통해서 많은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²⁾. 특히, 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도시의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역사도시가 지닌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은 도시를 찾는 관광객을 유혹하는 핵심 매력이자 도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볼 수 있다. 즉, 도시의 역사자산은 관광객의 역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동기 유발 요인(pull factor)이 될 수 있다³⁾. 다른 한편으로 역사도시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경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정체되어있고 고루한 이미지를 지닌 도시로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고민해볼 부분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두 도시의 사례는 역사적 요소가 도시 정체성의 기본적 토대지만 이에 덧붙여 공연예술축제는 새로운 요소가 가미되면서 다층적인 도시 이미지와 고유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도시가 이미 지니고 있는 역사적 요소에 더해 공연예술과 같은 감성적 요소를 결합하려는 노력은 앞서 소개한 고유성화라는 차원에서 cool authentication과 hot

2) Florida, 2002

3) Crompton, 1979

authentication의 양방향의 고유성을 강화시키는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유사한 관점에서, 역사는 교육적 요소가 강하게 발현되는 측면이 있어 이성적 소비, 예술은 감성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도시의 사례는 대립적 매력 요소의 병렬적 결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결과적으로, 이성과 감성 두 가지 영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지 요소를 갖추는 것이 관광지의 매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역사와 예술을 통한 관광은 도시의 매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도시가 다층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계층과 취향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예술, 축제, 관광 등이 조합된 형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 수원시에 주는 시사점

이 글에서 제시한 두 역사도시의 사례는 국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화성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유산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고유성 있는 건축유산을 통해 수원은 역사도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역사적 자산과 이미지를 관광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원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인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의 역사적 자산을 핵심 소재로 하는 축제이다. 관광산업 측면에서 수원의 매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역사도시의 다층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연예술과 같이 감성적인 요소를 가미하려는 전략적 노력 또한 필요해 보이고, 이는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한 접근으로 보인다.

[6] 역사도시와 관광산업

□ 역사와 유산, ‘유산관광’

역사와 유산에 대한 현대사회의 관심은 일명 유산관광(heritage tourism)의 성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역사와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러 동인이 존재한다. 역사도시에 대한 관심과 증가하는 방문수요는 당연히 역사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관광산업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다. 역사와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거시적인 원인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과거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의미하는 노스탤지어(nostalgia)가 현대인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노스탤지어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해 개인이 지닌 일종의 미화된 그리움을 뜻한다. 노스탤지어 현상은 일반적으로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로 간주하고 있지만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상호 공유하는 집단적인 그리움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집단적 노스탤지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유산관광의 세 가지 성장원인

현대적 생활방식이 빠른 속도와 치열한 경쟁이라는 특징을 지니면서 현대인들은 불안감을 상시로 지니고 있다는 사회적 진단이 일반적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다. 불안감에 직면한 현대인들이 대처하는 전략적 반응 중 하나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불만족 혹은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피란처의 개념으로 과거에 대한 소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집단적 노스텔지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산에 대한 관심과 유산관광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집단적 노스텔지어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UNESCO의 세계유산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과거유산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일종의 유산의 세계화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프로젝트는 일반인들의 관심영역 외부에 있었던 유산을 중요 관심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유산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거 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만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도시 사이에 자신들의 유산을 인정받기 위한 일종의 인정투쟁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유산관광의 성장 원인 세 번째 요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국가 및 집단 정체성 확보의 수단으로서 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세계화 이전의 시기에는 국가 간 집단 간 교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민족 간 집단 간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화로 인해 표준화된 문화는 집단별 구분을 없애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즉, 국가정체성 혹은 민족정체성이 표준화되어 가는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 위협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어 전략적 선택으로서 유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최근 들어, 각 국가 간 세계유산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쟁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체성 확보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 오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역사도시와 관광의 연계는 체험학습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학습하는 방식은 현장과 유리된 강의실에서 문헌과 구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현장의 맥락에서 벗어나 일차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의문도 많이 있다. 체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은 직접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배움이 이루어지는 학습형태를 의미한다. 사람이 언어와 문자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심리학과 교육학에서의 연구결과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학습방식으로서 등장한 것이 체험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오감(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모두 활용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체험학습은 절대적인 정보수용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해의 폭과 기억이라는 면에서 효율적인 학습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역사도시를 직접 방문해서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직접 관찰하고 참여하여 설명을 듣는 활동이 추가 되는 유산관광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